

22회 전주인권영화제

수신 : 전북도청 前 인권팀장 성폭력사건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대책회의

참조 : 사단법인 성폭력예방치료센터장

제목 : 대책회의의 공개질의에 대한 답변

1. 대책회의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귀 단체가 요청한 사안에 대해 22회 전주인권영화제 조직위원회의 답변을 드립니다.

가. 우리 조직위원회는 21회 전주인권영화제 기간에 자원봉사자에게 발생한 사건에 대하여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으며, 피해 당사자에게 다시 한번 사과드리고, 시민단체에게도 깊은 유감을 표명합니다.

나. 22회 전주인권영화제 조직위원회는 인간존중 및 성평등의 관점에서 영화제를 준비하고 있으며, 불미스러운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영화제에 참여하는 운영진은 물론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사전 인권교육을 시행하고, 행사기간 동안에도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할 것입니다.

다. 전주인권영화제는 '인권'영화제로 우리 사회 소외된 인권 문제를 환기하고 인권감수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2회 전주인권영화제의 슬로건은 '다름은 옳다'로 그와 관련된 다양한 영화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 우리 전주인권영화제에 대한 애정 어린 시선과 비판적 질책들을 귀감으로 하여 오랜 기간 이어온 인권영화제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

22회 전주인권영화제 조직위원장



담당자 김미현

조직위원장 송년홍

시행 전인영-1112 (2017. 11. 12)

접수 (2017. .)

전화 063)286-0179

전송 063)236-0179

human_edu@hanmail.net